지역 소식통

정읍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공개채용

정읍시가 정읍시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채용한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 내·외부 전문인력 중 적격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되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4호)으로 임용되어 보건의료와 위생 등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소장 공개채용 접수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사면허가 있는 자 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 진료 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현직 공무원인 자로 일정 수준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에서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부안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총 18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과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의 경우 방문현장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견청취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제시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광수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사활

고창군, 국회 방문 등 정치권 문 두드리며 총력전

고창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고창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고창군은 현재 충청에서 전남에 이르는 한국의 갯벌의 중간지점으로 지리적으로 한국의 갯벌 관리의 효율적 장소다.

특히 생태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한 전라북도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유치 당위성 설명했다.

또 갯벌과 연접한 55만평의 사업대상 부지를 미리 확보해 공모 대상 면적 이외에도 향후 시설의 확장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가 요구하는 부지면적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창갯벌이 한국의 갯벌의 모든 특성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르게 도보로 5㎞까지 직접 나가 갯벌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생태교육의 최적의 장소다.

사업대상 부지가 태양광 건립을 막아내고 생태적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전본부 건립 시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에 강점을 가지는 등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를 적극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9월말 공모신청이 예정돼 지자체별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정치권과 협력해 고창군이 반드시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국가비상사태 대비' 정부기능 정상화를 위한 2022년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2일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고창군, 전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고창군이 '국가비상사태 대비' 정부기능 정상화를 위한 2022년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2일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

응소 대상 총인원 801명 중 현장근무자, 임산부, 영유아를 둔 부부 공무원 등을 제외한 740명 전원이 응소해 고창군 전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훈련, 민관군경 종합상황실운영, 정부기관소산훈련, 도상연습(생필품사재기 및 가격폭등 종합대책, 상수도 급수시설 파괴에 따른 종합대책), 전시현안 과제토의(인근지역 원전시설 파괴에 따른 주민대피, 전시예산편성 및 관리대책), 실제훈련으로 민방공대피훈련과 적테러 발생시 주민대피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을지연습 기간동안 많은 군민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마을회관에서 비상사국민행동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방독면착용교육 및 화생방 대피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이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율 20%→15% 인하

부안군, 지원율 연차적 확대… 2025년 농가부담금 제로화 발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안군은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농가부담금을 제로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추경편성을 통해 8월부터는 군비를 5% 인상 지원하여 농가 부담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 관내 농가의 자부담금이 총 11억8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25%경감된 8억9,200만원만 납부하면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추가지원은 8월 22일 가을감자 보험판매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농가가 보험료의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부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 6월 말 기준 8,868㏊로, 전년 동기 6,440㏊의 138%를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박차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활력이 넘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향기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토대로 정읍시 현실에 맞는 사업목표 및 비전을 재구성해 아카데미 운영, 농촌관광,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2일 이학수 시장과 지역 단체, 시민,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정책제안 페스티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사업으로 전환, 시민들에게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사업발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 도출과 시행계획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일방향 토론회가 아닌 편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신활력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희망찬 정읍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주민주도 마을사업 자치분권 실현 '앞장'

정읍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각종 마을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등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내장상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도 내장상동에서 추진할 마을 의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낀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제안한 마을 문제를 더 많은 주민과 논의하고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다.

주민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하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다.

총회에 앞서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의제를 제안받아 3개 의제를 발굴하고,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1순위는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반찬 나눔 사업이 선정됐다. 2순위는 △고위험군 가정 환경개선사업, 3순위는 △내장상동 가족 노래자랑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들 사업은 2내년 내장상동 마을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